

'2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지식재산 보호 순위, 큰 폭 상승(9단계 ↑)

-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 작년 37위에서 올해 28위로 8년 만에 최고 순위
- 기술 탈취 방지대책 등 공정한 보호 체계 구축으로 내년 10위권 진입 목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월 20일(화)에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해,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해 8년 만에 다시 20위권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로잔)

** 한국 지식재산 보호 순위: ('15) 27 → ('16) 38 → ('17) 44 → ('18) 39 → ('19) 37 → ('20) 38 → ('21) 36 → ('22) 37 → ('23) 28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지식재산 5개 지표 중 나머지 ①특허출원 건수와 ②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에 이어 각각 4위를, ③인구 1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2위를 유지했고, ④인구 10만명당 유효특허* 건수는 4위에서 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 유효 특허 : 권리가 만료되지 않고 계속 중인 특허

** 특허출원 건수(4위→4위), 특허등록 건수(4위→4위), 인구 10만명 당 특허출원 건수(2위→2위) · 유효특허 건수(4위→3위)

그동안,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지식재산 부분은 양적 지표인 특허출원 건수, 특허등록 건수 등에서 최상위 순위를 차지했으나, 설문조사로 산출되는 지식재산 보호 순위에선 30위권 밖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허청은 이번 지식재산 보호 순위가 크게 상승한 요인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특허청 기술 경찰을 통한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위조 상품 단속 강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기업인 대상 지식재산 보호 강연 및 교육 강화 등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으로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순위를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기술 탈취 방지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특허청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는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특허청은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소관 부처로서 우리 기업의 소중한 무형자산이 철저히 보호되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재석 (042-481-5213)
		담당자	사무관	김영재 (044-481-5179)

□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도 지표

- IMD 국가경쟁력 평가의 4대 분야* 중 인프라 분야의 과학인프라 부문에 포함된 5개의 지식재산 관련 지표 중 하나로서, IMD가 각 국 파트너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는 설문지표

* ① 경제성과 ② 정부효율성 ③ 기업효율성 ④ 인프라

□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도 순위 산정 방식

- (설문조사기관) IMD의 한국 파트너 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IMD측으로부터 설문조사 문항과 대상자를 받아 이메일로 설문조사 진행
- (조사문항)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의 단일문항에 대해 6점 만점 척도로 조사

* 국가경쟁력 순위에 반영되는 총 지표 중 설문지표 수가 총 지표 수의 1/3을 넘지 않음

- (설문대상자) IMD에서 선정한 한국 기업인 및 대한상공회의소·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원사(약 4천~5천명) 대상 실시(최소 80명 응답 필요)
- (순위산정) 6점 만점 척도로 조사된 점수를 IMD에서 10점 척도로 변환 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순위 산정

구분	주요 내용																																																							
기관	▶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 스위스 로잔)																																																							
발표	▶ 매년 6월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대상	▶ OECD 국가 및 신흥국 총 64개국																																																							
목적	▶ 국가와 기업이 그들의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평가 * (국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역량 (기업)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역량																																																							
구성	▶ 4대 분야, 20개 부문, 336개 세부항목* (보조지표 제외시 256개) * 통계자료: 164개 + 설문조사: 92개 / 보조지표: 80개(순위 산정에 불포함) <table border="1" data-bbox="352 1294 1385 162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4">경제성과</th> <th colspan="3">정부 효율성</th> <th colspan="4">기업 효율성</th> <th colspan="4">인프라</th> </tr> </thead> <tbody> <tr> <td>국 내 경 제</td> <td>국 제 무 역</td> <td>국 제 투 자</td> <td>고 용</td> <td>물 가</td> <td>재 정</td> <td>조 세</td> <td>제 도</td> <td>기 업</td> <td>사 회</td> <td>생 산 성</td> <td>노 동</td> <td>금 용</td> <td>경 영</td> <td>행 태</td> <td>기 본</td> <td>기 술</td> <td>과 학</td> <td>보 건</td> <td>고 육</td> </tr> <tr> <td>경 제</td> <td>역 역</td> <td>자 자</td> <td></td> <td>가</td> <td>정</td> <td>정 책</td> <td>여 건</td> <td>여 건</td> <td>여 건</td> <td>성</td> <td>시 장</td> <td>시 장</td> <td>활 동</td> <td>가 치</td> <td>인 프 라</td> <td>인 프 라</td> <td>인 프 라</td> <td>환 경</td> <td>육</td> </tr> </tbody> </table> ※ 지식재산 관련 지표는 총 5개로, 과학 인프라 분야에 포함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국 내 경 제	국 제 무 역	국 제 투 자	고 용	물 가	재 정	조 세	제 도	기 업	사 회	생 산 성	노 동	금 용	경 영	행 태	기 본	기 술	과 학	보 건	고 육	경 제	역 역	자 자		가	정	정 책	여 건	여 건	여 건	성	시 장	시 장	활 동	가 치	인 프 라	인 프 라	인 프 라	환 경	육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국 내 경 제	국 제 무 역	국 제 투 자	고 용	물 가	재 정	조 세	제 도	기 업	사 회	생 산 성	노 동	금 용	경 영	행 태	기 본	기 술	과 학	보 건	고 육																																					
경 제	역 역	자 자		가	정	정 책	여 건	여 건	여 건	성	시 장	시 장	활 동	가 치	인 프 라	인 프 라	인 프 라	환 경	육																																					
자료	▶ (통계) 국제기구, 각국 정부통계, 민간기업 등의 자료 활용* * 국제기구 (IMF, World Bank, OECD, ILO 등), 정부통계(통계청 등), 민간기업 (Mercer HR Consulting - 생계비지수 등) ▶ (설문) 전세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IMD 및 각국 파트너기관 (한국: KIEP)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최소 80명 이상 응답자 확보)																																																							

참고3

한국의 '23년 지식재산 관련 지표 순위

순위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건수	출원인 국적별 특허등록 건수	인구 10만명당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건수	인구 10만명당 출원인 국적별 유효 특허건수
1	중국	중국	스위스	스위스
2	미국	미국	한국	룩셈부르크
3	일본	일본	룩셈부르크	한국
4	한국	한국	일본	일본
5	독일	독일	스웨덴	스웨덴
6	프랑스	프랑스	덴마크	핀란드
7	대만	대만	대만	대만
8	영국	영국	핀란드	덴마크
9	스위스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10	인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 지식재산 보호순위는 28위